



젊은남의 꿈과 로맨스를 향한 영화 '라라랜드'. 복고풍이 나는 영화의 아이콘이 된 노란 색 드레스.



잔혹한 모습으로 변한 흑조의 모습. 비대칭 디자인의 아방가르드한 발레 의상과 메이크업을 한 영화 '블랙스완'의 주인공 나나.

영화 속 패션 알고 보면 영화가 더 재밌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
진경옥 지음

“영화 의상은 배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영화의 전체적인 효과에 공헌해야 한다.”

프랑스 영화감독 니콜 베드레의 말이다. 즉 영화의상은 배우의 특별한 배역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을 진경옥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영화 속

패션을 알면 영화가 훨씬 재미있어진다”고 풀이한다. 진 교수의 말은 “등장인물의 모든 감정이 의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영화의상은 장면이 바뀔 때 입고 나오는 의상만으로도 스토리 전개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일반적인 패션은 영화를 통해 유행해 왔다. 대중매체 가운데 폭넓게 사랑을 받는 분야가 영화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의상은 스토리텔링 건인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당대의 패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영화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요 텍스트라는 의미로 전이되는 이이다.

누구나 사랑받는 청바지는 1930년대 카우보이 영화를 기점으로 유행이 시작됐다. 1953년 말론 브란도는 강패 두목으로 출연한 영화 ‘위험한 질주’에서 청바지를 입었다. 제임스 딘 역시 1955년 제작된 ‘이유 없는 반항’



청바지는 카우보이 영화부터 유행

영화의상은 등장인물 이미지 창조하고

이야기 넘어 트렌드 전인하는 매개체

에서 청바지를 착용했다. 두 배우의 사례는 청바지가 젊은이의 이미지로 확실하게 각인된 계기를 만들었다.

나아가 청바지는, 특히 여성이 입었을 때는 이전 시대의 가부장적 제도에 도전한다는 함의를 지녔다. 페미니즘 영화의 진수 ‘넬마와 루이스’는 여성 청바지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까지 담아냈다. 청바지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시크한 이미지”로 자리 잡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이 진경옥 교수가 펴낸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는 패션과 영화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저자는 10개의 주제에 37편의 영화를 대입해 의상이 어떻게 스토리와 인물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지 초점을 맞춘다. 전작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에서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주목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패션을 토대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 ‘블랙스완’에서 주인공 의상이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변하는 과정은 분열된 자아의 심리를 드러낸다. 비대칭 디자인의 아방가르드한 발레 의상을 한 주인공 나나가 흑조로 변한 모습은 잔혹하리만큼 강렬하다.

‘위대한 개츠비’의 플래퍼 록과 개츠비 록의 스타일이나 색감은 엇갈린 주인공 남녀의 심리와 연결된다. 영화 ‘색, 계’에서 청록색 치파오를 입은 마부 역의 탕웨이, ‘레미제라블’의 공장 노동자인 판틴 역의 앤 해서웨

이의 옷차림도 처지와 심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패션역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의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채롭다. 영화와 함께 풀어내는 당대 사회사는 실제 스크린을 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1942년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입은 트랜치 코트, 1951년 말론 브란도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입은 티셔츠,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은 후드 티셔츠” 등이 그러한 예다.

그뿐 아니다. 1977년 영화 ‘애니홀’의 다이앤 키튼이 입은 여성 바지정장, 최근에 상영됐던 ‘킹스맨’의 신사 복 정장은 “패션은 당대를 대변한다”는 명제에 부합하는 옷차림으로 손색이 없다.

영화의 장르가 다양하고 이야기 주제가 다채로운 만큼 의상도 각각각색이고 스펙타클하다. ‘섹스 앤더 시티 2’의 액세서리, 보석을 장식한 의상과 빈티지한 차림은 뉴욕 패셔니스타 언니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여준다. ‘레미제라블’이나 ‘타이타닉’ 같은 시대극에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오늘날의 시대로 재조환되는 이야기의 역동성도 담겨 있다.

이처럼 영화의 패션은 흥미진진한 서사를 넘어 트렌드를 견인하는 매개체가 된다. 책을 읽고 나면 저자의 다음과 같은 생각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영화에는 스타일이 녹아 있다. 그래서 영화는 스타일의 교과서다.”

〈산지니·1만9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박범신 ‘유리’

올해로 등단 44주년을 맞은 작가 박범신의 장편 ‘유리-어는 아나키스트의 맨발에 관한 전설’이 발간됐다. 작가의 통산 43번째 소설이기도 한 ‘유리’는 20세기 초 태어난 ‘유리(流離)’라는 남자의 한 세기에 걸친 맨발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상경화된 동아시아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살아남기 위해 떠돌아다니다가 된 아나키스트의 운명과 ‘난민’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작가가 처음으로 판타지 기법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발표해온 장편들과 차이가 있다. 구렁이, 은여우, 원숭이, 뱀 등 동물들은 유리의 여정에 동반자로 등장한다. 또한 서커스단 외딴지 여인과 사랑 이야기나 사막에서 만난 큰마리의 꾀병을 치료하는 장면 등은 이색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소설은 1915년 화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수로국에서 태어난 유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곱 살에 천자문을 떼고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리는 영특한 아이다. 또한 서커스에 나가도 될 만큼 몸이 유연할 뿐 아니라 허가 길어 팔재간이 좋다. 그즈음 가난한 인텔리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큰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는 도시로 홀로 나가 살게 되고 유리는 큰집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리의 삶은 변곡점을 맞는다. 작가는 “가차 없이 썼다. 이야기는 절로 아귀가 맞춰졌고 문장은 손끝에서 스스로 완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의 문’에 다가서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박형준 옮김 ‘유로’

1999년 유럽인의 축복 속에 출범을 알린 공동 화폐 ‘유로’는 ‘1억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장밋빛 미래를 안고 출범한 유로는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통합을 서두른 탓에 유로는 분열의 도구로 변질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석학 스티글리츠는 오늘의 유럽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중심에 ‘유로’가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이번에 펴낸 ‘유로’는 공통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유로존(공동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19개국)은 ‘고정된’ 환율과 단일 이자율을 갖는다. 환율이 고정됐다는 것은 환율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완전 비용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 화폐로 묶여 있는 나라가 경제 침체에 직면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경제 침체에 직면한 국가는 완전 고용을 위한 처방약으로서 소비와 투자 촉진에 의한 ‘낮은 이자율’, 수출 장려를 위한 ‘낮은 환율’,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재정적책’ 세 가지 메커니즘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로는 앞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거했다.

저자는 유로존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필요하다면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데이비드 슬론 윌슨 지음·황연아 옮김 ‘네이버후드 프로젝트’

도시에서 일어나는 삶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과학과 진화 과학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이며 선택의 단위 논쟁이라는 진화 과학 최대 논쟁의 주도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슬론 윌슨이 현대 문명의 빛과 그림자, 도시, 이기와 배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각박한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타적 시민들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는 미국 뉴욕 주 북부에 자리한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빙엄턴에서 이웃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진화론 실험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5년간에 걸친 진사회성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빙엄턴 시의 진사회성 GIS 지도를 만들어 낸 ‘빙엄턴 네이버후드 프로젝트’, 빙엄턴 시 지역 노인들의 개인적인 삶과 유전자의 관계를 분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유전자 프로젝트’와 같은 진화 생물학, 분자 유전학, 사회 과학을 융합한 실험들이 수록돼 있다.

또 저자가 속한 생물학 분과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번역학자, 인문주의자 시민 단체 리더, 투자 금융 회사의 CEO, 로마 교황청의 신학자 등과 만나며 진화론적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 저자 개인의 흥미진진한 체험담을 들려준다. 이처럼 진화 과학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실제로 탐구한 사회 실험의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